

文 洪 世

- 서울대 外來教授
- 現 文신경정신과의원장
- 전화 : 269-3929



「有頂天에 올라서 万感を 잊고…」

사실 산에 갈 때는 무심히 훌쩍 떠나면 그만인데 그게 그렇지 못해서 매번 갈 때마다 문앞에서 가로막는 아내와 그것을 겨우 달래서 문을 넘어설 때의 아내의 저주가 감춰진 잔소리를 등으로 받으면서 장속의 새가 날아가듯 뛰쳐 나오는데 집구석에서 일요일 하루라도 나를 완전 점령하고 싶은 아내의 심정도 이해는 가나 한편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한번 출근하면 하루 온종일, 어떤 때는 문밖도 나가기 싫어서 점심을 시켜

다 먹을 정도로 꼬박, 등이 뻐뻐해지도록 앉아만 있고 담배는 나이걱정을 넘어서 출창 빨아대면서 골치를 써야 하는 직업이라서 몸이 자연 운동부족이다. 이따금 몸속에서 운동부족의 적신호를 받고도 정 죽겠지 않으면 조강도 게을리하는 성미라서 주말이면 시원한 공기가 그리워지고 운동부족에 걸린 종아리는 나를 산으로 재촉한다.

짜을 찾아서 시간을 같이 맞추고 부지런히 시간에 매어가야하는 테니스

다 골프다하는 운동도 내 체질상 안
맞고 실상 50분간 꼬박 인터뷰하고 다
음에 10분 쉬고 다음환자보고 늦게 오
는 환자때문에 속 썩이면서 기다려야
하는 직업이라서 누구와 시간 맞추는
것을 일요일 하루만은 안했으면 하는
나 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산밀 어디
에서 몇시에 만나자해서 5분이상 늦
지않는다.

어쨌던 등산이 시작된다. 슬슬 걷는
다. 슬슬 오른다. 겨울등산이 제일 좋
은건 시끄러운 행락객이 없어서 좋고
콧속은 말할것없고 폐속까지 시원하
게 들어오는 공기는 폐속의 담뱃진을
말끔히 씻어내고 심장 어느 한구푹이
산소가 모자랐던 그끝까지 새공기로
갈아 넣어준다. 헉헉 거리면서 공기를
갈아넣는 맛이야 무엇에 비할꼬 슬슬
다리에 힘이 오르기 시작하면 시들했
던 화초가 물마시고 새기운 들든지 종
아리 장단지 허벅지에 힘이 솟는다.쉬
엄 쉬엄 능선에 오르면 확 툅어지는
시야, 멀리 보이는 봉우리들 매연속의
서울시가지, 有頂天에 올라서 万感
을 잊고 市井을 잊는다. 先祖들의 氣
尚을 느끼고 본다. 저만치 떠 있는 구
름을보고 발밑의 눈발속의 낙엽을 본
다. 눈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진달래
가지사이에 앉아 버너에 불을 지핀다.
저만치 나무등거리를 쭈어다 밥솥에
불을 지핀 자죽에 향수마저 느끼며 이
야기 꽃이 핀다. 아이들이 든 탕인지
山공기 탕인지 이야기가 거칠지않다.

無念속에서 이야기는 걸돈다. 미국의
산악반교수가 뉴욕의 시정배 뗏을 30
00m 넘는 산에 끌고 갔더니 다 착한
놈들이더라 하던가. 이 높은 산에 암
자는 왜 그리 많았던고 山寺는 왜 山
에 있다. 저 바위밑 다 녹은 촛농, 촛
불을 켜놓고 그 어머니는 무엇을 祀
願했을까. 祀福宗效다 샤마니즘이다.
할것 뭐 있나 그나름대로의 一心이
아니었던가. 앓고 고향질러보면서 산
꼭대기에서 오줌누는 文姬의 꿈을聯
想해본다. 한구 더 올라가면 더 잘 내
려다 보인다. 깨달음의 상징적높이 55
階段이 있다던가. 煙幕속이라도 같은
저밑 서울바닥에서 혈떡이며 돈을 쫓
아 헤매일 내일, 내일은 내일이고 지
금은 久遠한 時間속에 있다. 例의 그
녀석이 목청을 뽀는다. 그놈의 목청
소리를 지금은 가버린 J의 영혼이 들
고있겠지 앙칼소리 없이도 또 뽀을테
니까 잘 들겠지, 젠장.

오늘은 수요일, 지금 책상에 앉아
끄적끄적 쓰면서도 생각은 북한산 골
짜기를 헤메고 인수봉을 쳐다본다. 너
무 가까이있어 고맙고 소중하고 나에
겐 세계에서 제일가는 名山이다. 마음
은 벌써 오는 일요일 山으로 달 린다.

